

Global Asset Talk

트럼프 변덕에 알 수 없는 방향성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미중 무역분쟁 격화 속 안전자산 우위

지난 주 글로벌 자산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 속에서 크레딧을 중심으로 안전자산군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HIS 마켓의 미국 8월 제조업 PMI(49.9)가 10년 만에 수축국면으로 진입하며 미국 장단기금리차(10년-2년국채) 역전 폭이 확대되는 등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군인 한국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 지역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전주대비 -0.64% 하락했다.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 : 트럼프 변덕에 관망세가 편안해 보이는 구간

지난 한 주간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지난 주말 중국 정부의 추가관세(750억불 규모, 5~10%)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맞대응(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5%씩 추가 관세)에 나서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10년 만에 수축국면에 진입한 미국 제조업 PMI 부진으로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는 아이러니하게도 8월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위험자산군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우선, 애틀란타 연은의 실시간 GDP 모델(8월 중순 1.8%에서 현재 2.3%까지 상향 조정)은 우려와 달리 미국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함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측이 기존 2,5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10월 1일로 정한 점이나, 중국측의 협상 재개 의사 전화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주장(중국 정부는 부인) 등은 9월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오는 9월 1일부로 미국측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관세전쟁이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겐 9월 12일 ECB, 9월 18일 FOMC가 대기하고 있다. 여러모로 모든 자산군에 대한 관망세가 편안한 구간이다.

Asset Allocation

자산배분



Economist/자산배분 나중역

02-3771-3638

jhna73@hanafn.com

RA 김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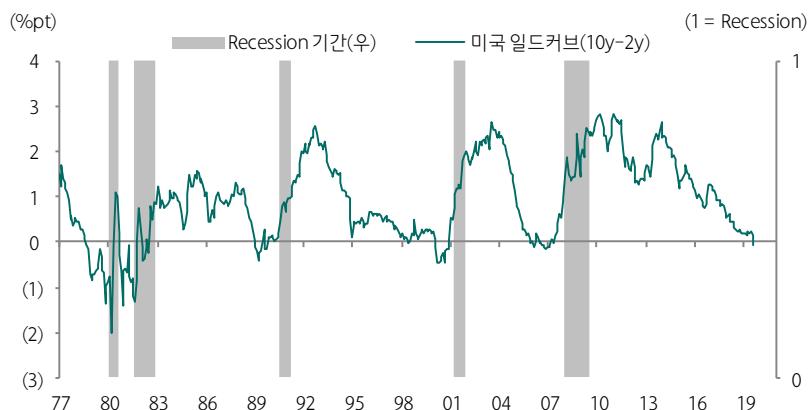
02-3771-3112

joonghu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10년-2년국채) 스프레드 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확산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1.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

자산그룹(BM)	8월 비중	자산군	8월 비중	벤치마크	BM 수익률	BM 수익률	PF 수익률
주식 (MSCI ACWI)	43.4%	국내	14.80%	KOSPI	-1.84%		
		선진국	20.10%	MSCI WL	-0.78%	-0.83%	-1.23%
		신흥국	8.50%	MSCI EM	-1.24%		
국채 (JPM GBI BI)	36.8%	국내	17.90%	국채+통안채(자체합성)	-0.49%		
		선진국	12.80%	JPM 글로벌 채권지수	0.14%	0.14%	-0.29%
		신흥국	6.10%	JPM 이머징 채권지수	-0.59%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0.9%	국내	5.10%	국내 크레딧(자체합성)	-0.20%		
		투자등급	3.80%	바클레이즈 글로벌 IG 회사채	0.57%	0.57%	0.21%
		하이일드	2.00%	바클레이즈 글로벌 HY 회사채	0.59%		
대체투자 (S&P GSCI TR)	4.0%	원자재	1.80%	S&P GSCI TR	-0.92%	-0.92%	-0.50%
		리츠	2.20%	FTSE REITs	-0.15%		
유동성(Cash Index)	5.0%	유동성	5.00%	KRW Cash Index	0.02%	0.02%	0.02%
주간수익률						-0.28%	-0.64%
연초대비 누적 수익률						9.01%	5.39%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자산배분 전략에 활용해 볼 수 있는 ETF

종목코드	설명	최근 NAV 흐름
IVV	iShares Core S&P 500 ETF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대형주 ETF’ - S&P500 종목들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며 보수율 0.04%로 동종 ETF 중 가장 저렴. SPY 대비 규모는 작은 편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 - 글로벌 경기 우려 등이 자산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나 유동성 모멘텀 유효한 가운데 위험자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증시 투자 권고	(달러)
IEF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 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중기 국채 ETF’ - 만기가 7-10년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듀레이션은 약 7.5년. 보수율은 0.15%로 다소 높으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추적오차 제공 - 연준의 추가 부양 정책을 기대하는 시장 스탠스. 미국 국채는 단기적으로 매력도 유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시장 인식 변화를 주시할 필요	(달러)
IEFA	iShares Core MSCI EAFE ETF - MSCI World ex USA IMI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외 선진증시 ETF’ - 유럽 및 선진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며 북미 지역은 제외. 유럽 지역 포지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 및 호주 비중이 30% 수준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리스크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위험 자산 우위 속 엔화 약세 예상. 미국 외 선진증시 투자전략 유효	(달러)
DBB	Invesco DB Base Metals Fund - DBIQ 산업금속 인덱스를 추종하는 ‘산업금속 선물 ETF’ - 알루미늄, 구리, 아연의 세 가지 종류의 비철금속에만 투자하고 있으며, 각 선물 바스켓에 동등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 - 글로벌 경기 경착륙 우려와 더불어 무역협상 우려감 고조되고 있으나, 4분기 중 무역협상 봉합 및 위험자산군 우위 환경 속 상승세 이어질 개연성	(달러)